

눈길, 발길 닿는 곳마다 감동의 파노라마...순간순간이 모여 만든 추억

키우리산악회와 함께 떠난 문경 대야산



이인지
LG엔시스 사원

지난 13일 아침, 주중 5일간의 치열한 근무를 마치고 주말을 맞아 굳혀 잠을 자다 나도 모르게 눈을 벌떡 떴다.
한 달 내내 기다려왔던 제150회 키우리 대야산 산행일이기 때문이다. 대학시절 존경하던 은사님의 추천으로 한 번 나가게 된 것이 인연이 돼 이번이 6번째 산행이다.
집결장소에 도착하자, 오랜만에 보는 회원들이 커피를 나누며 서로의 운기를 느끼고 있었다. 키우리 산행의 특징은 음식이 있으면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배부른다는 것이다. 오늘도 몇몇 회원들이 커피를 비롯해 떡, 음료수를 준비했다.
마음 따뜻하게 목적지인 대야산으로 출발했다. 이번 산행의 목적지인 '대야산'은 충북 괴산군 정천면과 경북 문경시 가은읍 중간에 위치한 산으로 속리산 국립공원에 속하며 높이는 931m에 이른다. 산 중간 중간에 발을 담그고 싶은 생각이 드는 전국의 '유명 계곡'이 즐비한 산으로 유명하다. 광주에서 대야산까지의 거리는 270km, 자동차로 약 3시간30분이 소요된다.

꽤 긴 이동시간이 소요됐지만, 동일한 목적지였던 2010년 제 92회 대야산행 사진을 음악과 함께 동영상으로 만들어 온 '신세대 총무'의 배려로 지난 추억을 되새기며 기분 좋게 대야산 주차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주차장에서 안전한 산행을 기원하는 협찬 파이팅으로 산행을 시작했다.

이번 산행코스는 주차장-용추폭포-월영대-밀재-정상-피아골-월영대-주차장이었다. 산행거리 9.5km에 약 5시간이 소요되는 비교적 완만한 코스다. 밀재까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이한 계곡 암벽들을 구경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다. 산행을 하며, 눈이 호강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부 회원들은 계곡에 발을 담그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간간히 보였다.

이렇게 경이로운 암벽의 묘미는 아무래도 그 유명한 용추계곡의 '용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잠깐 전설을 빌리자면 두 마리의 용이 승천해 남긴 바



속리산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대야산은 충북 괴산군 정천면과 경북 문경시 가은읍에 걸쳐있는 명산으로 백두대간 주변 구간 중 가장 뛰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특히 초입부터 펼쳐진 계곡에는 무당소, 용추, 월영대 등 온갖 형상의 수반위로 옥계수가 흘러 산행에 또다른 묘미를 전해준다.

자국이 바위에 새겨졌다고 한다. 그 형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기저기에서 좋은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의 '플래쉬'가 터지곤 한다.

눈이 호강한 용추폭포와 월영대를 지나 중간지점인 밀재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각자 준비해 온 도시락을 나눠먹으니 임금님의 12첩 밥상도 부럽지 않았다. 식사 후에 밀재부터는 제법 암벽지형이 험난하기 때문에 정상에 오를 것인지, 중간에 다시 월영대를 통해 내려갈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몇몇 회원들을 제외하고, 회원 대부분이 정상에 오르기로 했다. 이미 밀재까지 올라오면서 눈이 호강한 터라 다들 정상의 모습을 금급해 했기 때문에 '정상'행을 선택한 듯 보였다.

예상대로 정상으로 가는 길은 밀재까지의 산행을 비롯기라도 하듯 무척 험난했다. 바위 틈새로 미끌 미끌한 자갈들은 다리에 자연스럽게 긴장을 줬다. 힘든 와중에도 틈틈이 봤던,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암벽들의 모습은 과히 명산이었다. 약 1시간의 험난한 암벽길이 끝나자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다.

역시 등산의 묘미는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닌가 싶다.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진 산줄기의 향연을 보니, 일상에서의 피곤함이 단 번에 뺄 뺄리는 마음이 들었다. 정상에서의 기분을 만끽한 후, 하산을 위해 피아골 계곡을 따라 내려왔다.

피아골의 내리막길은 바위에 뿌려진 모래자갈들로 인해 정말 험난했다. 그러던 중 산악회원 중 한 명의 양쪽 종아리에 '급성 경련'이 오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자칫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는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하산을 인도하는 산악대장의 침착한 배려 덕분에 그 회원은 안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쉬어가는 산악대장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행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자신의 양쪽 종아리에 직접 바늘을 수십 번씩 찌르며, 내려가려는 의지를 발휘했던 그 회원의 모습에서 '의지의 산악인'의 면모를 볼 수



용추 계곡에서 만난 하트모양의 '용소'가 이채롭다.

있었다. 또한 혈을 풀어주는 바늘과 식용 포도당을 주저 없이 건네준, 지나가던 등산객들의 친절에 정말 감사했다. 요즘 같은 삭막한 세상에 서로의 운정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등산의 묘미다.

참고로 대야산은 등산로 곳곳에 119 구급대원이 쉽게 출동할 수 있도록, 포인트(Point)가 지정돼 있다. 그래서 비상사태 발생 시 그 포인트(Point)를 말해주면 구급대원이 쉽게 찾아올 수 있으니, 산행 시 참고하기 바란다. 다른 산행보다도 이번 대야산 산행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이번 등산을 한마디로 '눈이 호강한 산행'이었다.

/글=이인지(LG엔시스 사원)
/사진=이광호(광주매일신문 시민기자)



대야산 정상에 선 회원들.

www.가족회관.kr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족회관

남도 전통 한정식 10년전 가격으로 고객님의 모십니다.

점심특선 한정식(1인 18,000원, 3인 이상 15,000원)

저녁한정식 2만 5천원~10만원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

“명화의 전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매: www.megabox.co.kr
ARS: 1544-0070

*업그레이드 쿠폰이벤트(주말까지 광명) * 2,000원 할인(총2인)~2,000원 할인(총2인)~영화티켓무료!!
* 1렘버십 동안 4인까지 2,000원 할인*

1관	쥬라기월드	12세
2관	스파이	15세
3관	쥬라기월드	12세
4관	센 안드레아스	12세
5관	메드 맥스: 분노의 도로	15세
6관	센 안드레아스	12세
7관	쥬라기월드	12세
8관	쥬라기월드	12세
9관	은밀한 유혹/간신	15세
10관	악의 연대기/형:저주받은 사친/무뢰한	15세/15세

메가박스클름버스시네마상무

업그레이드 쿠폰이벤트(주말까지 광명) 2,000원 할인(총2인)~2,000원 할인(총2인)~영화티켓무료!!
* 1렘버십 동안 4인까지 2,000원 할인

1관	센 안드레아스	12세
2관	쥬라기월드	12세
3관	쥬라기월드	12세
4관	쥬라기월드	12세
5관	코야 유행/형:저주받은 사친/간신	15세/15세
6관	스파이	15세
7관	악의 연대기/은밀한 유혹	15세
8관	메드 맥스: 분노의 도로	15세
9관	센 안드레아스	12세
10관	쥬라기월드	12세

메가박스클름버스시네마하남

*매일 심야영양합니다!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무료주차 3시간 복구보건소 건너편

1관	은밀한 유혹	15세
2관	쥬라기월드	12세
3관	센 안드레아스	12세
4관	쥬라기월드	12세
5관	메드 맥스: 분노의 도로	15세
6관	쥬라기월드	12세
7관	스파이	12세
8관	센 안드레아스	12세
9관	쥬라기월드	12세

메가박스전대